



The Reunified Korean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5. 7 통권 제7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권 두 언 / 변화를 추구하는 냉엄한 자세로 대북 쌀 협상에 임해야 한다 / 강인덕 2

특별 기획

김정일의 리더십과 정책 방향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이정식교수와의 대담 / 김용호 4

이달의 초점

남북경협 의 논리 / 김희진 21

시사특집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북일 경제관계 / 이우현 26
- 북미 경제관계 / 스티븐 위크먼 36
- 북중 경제관계 / 신상진 41
- 북러 경제관계 / 알렉산더 티모닌 47

현안

북한의 쌀지원 요청 배경과 지원 방안 / 남궁영 54

연구논단

- 북미 경수로 공급협상과 남북관계 전망 / 전용 62
- 남북한 농업부문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운근 74
- 남북경협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 제성호 87

인물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1) / 유명구 99

통일다리

북한의 관광 / 정석홍 108

자료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 112

변화를 촉구하는 냉엄한 자세로 대북 쌀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강인덕 / 국동문제연구소 소장

제1차로 제공키로 한 15만톤의 쌀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제공을 “아부런 전제 조건없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순수한 동포애의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7월에 있을 남북 쌀 협상에서 결정되는 제2차분은 국내 수요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고, 모자랄 경우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보내겠다”고 하였다.

하기야 같은 피를 나눈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식량이 없어 하루 두끼, 그것도 옥수수로 때우고 있다니, 그리울 것 없이 배불리 먹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동포애의 차원에서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주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과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에 쌀을 보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인도적 입장’이란 말은 북한공산주의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이다.

70년대 이산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을 위한 남

북적십자 회담이 개최되고 있을 당시 김일성은 우리측 대표와의 회담에서 “남조선에서는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인도적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문제야말로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 이산가족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고 그 이전이라도 남북간의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사회적 조건(국가보안법 폐기, 반공교육 중지 등)이 개선되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정치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 이산가족문제는 해결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주장에서 볼때 인도주의라는 말 자체가 북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북한당국은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란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와 압박을 가리우는 위장물”이라고 규정하며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평화적 이행전략(和平演變)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쌀 제공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단호히 거부한다는 기본태도를 견지하면서 쌀 제공을 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에서 열렸던 쌀협상에서 북측대표들이 취한 행동은 뻔뻔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오만한 태도였다. 무상원조를 요청할 정도로 궁색한 입장에 있는 북한측이 왜 이처럼 오만불손한 태도로 임하는가?

그것은 쌀협상을 정치협상(투쟁)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회담 형식에서부터 당국간 회담을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는 물론 우리측 선박이 북한 항구에 접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북한 연근해에서 바지선으로 항구까지 운송하겠다고 고집하였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 주장을 관철하면서 쌀제공을 수락한 것이다. 일본측 대표가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본국민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니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통계를 제시할 것과 군사사용으로의 전용 또는 제3국에 대한 전매를 하지 않겠다는 ‘용도투명성’의 제시를 요구하자 북측대표는 “이번의 쌀문제는 잉여쌀로 곤란을 겪고 있는 일본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쌀제공을 요구했으니 100만톤 정도를 무상 또는 무이자 장기상환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약자의 양탈’이라고 후히 보아 넘길 수도 있으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모든 협상을 정치투쟁으로 인식하는 북한태도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부 국민, 아니 지식인중에도 “강자인 우리가 양보하고 무엇이던지 주어야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의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에 의해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태도로 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것을 양보할 것이니 당신들은 이것을 양보해라”라는 식으로 한가지 한가지 짚어가며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면서 협상해야 한다.

특히 북한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거래나 투자협상에 임할 경우 진출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북한에 들어가 안심하고 기업운영이 가능한 환경조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경우 좀체로 협상타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유리하지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승산의 확률은 북한측보다 우리측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앞으로 진행될 제2차 쌀협상은 1차에서 보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농업생산구조로 보아 중국처럼 대담한 농업생산관리체제의 개혁이 없는 한 만성적인 식량부족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내년 또는 내후년 계속하여 쌀제공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달라고 손을 내밀 때마다 제공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당국에게 농업체제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쌀제공의 한계를 긋고 협상해야 한다.

감상적인 동포애로 북한당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변화,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임을 지적해 둔다.